

‘홉슨-레닌 테제’ (Hobson-Lenin Thesis)에 대한 비판

徐 廷 勳

I

홉슨(J. A. Hobson)과 레닌(V. I. Lenin)은 19세기 말 서구 열강과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식민지 팽창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제국주의 이론가들로 널리 알려져 왔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후대의 연구자들은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던, 비판하던 간에 양자가 제국주의라는 연구분야의 원조적, 대표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를 보이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은 자본주의적 중심부 경제와 식민지 팽창사이에 밀접한 因果的 連鎖를 제시함으로써 ‘경제적 제국주의론’ (Theory of Economic Imperialism), 또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론’ (Theory of Capitalist Imperialism)을 정립하고 이를 널리 확산시킨 사람으로 생각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제국주의에 대한 연구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들의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 왔다. 이처럼 제국주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홉슨과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중심으로, 즉 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이유는 정치적 상황, 구체적으로 말해 1917년 러시아 혁명과 여기에서 레닌이 점하는 위치, 그리고 그 뒤 계속되어온 동과 서의 이념적 대립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국주의에 대한 연구들은 강한 이념적 지향성을 띌 수 밖에 없었고 그만큼 치열해 질 수 밖에 없었다.¹⁾ 이러한 이념적 대립속에서 목적론적

비판과 반비판이 성행하게 되면서 두 진영사이의 제국주의 논쟁은 주된 논점을 분명히 하기보다는 오히려 쟁점을 모호하게 하고 논쟁 자체를 혼란에 빠트리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면 심지어 제국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그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짐으로써 사실상 논쟁을 무의미하게 만들 지경이라는 것이다.²⁾ 즉 두 진영의 연구자들은 자신들에 가해진 비판에 눈을 돌리고 각기 내 갈 길을 가는 식으로 무익한 논쟁을 계속해온 셈이다. 따라서 제국주의 논쟁에서 무엇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은 우선 논박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고찰하려고 하는 ‘홉슨-레닌 테제’의 문제는 바로 비판대상에 대한 냉정하고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다. 홉슨과 레닌이론에 대한 비판자들은 양자의 제국주의론을 사실상 하나의 단일모델로 단정하고 이에 대해 비판을 가했고 그 결과 이들의

- 1)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에 관련된 학자들의 글에서 일반적인 학문적인 논쟁에서 찾아보기 힘든 감정이 실린 언급들을 발견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예컨대 ‘자유무역 제국주의론’을 대안의 설명으로 제시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로빈슨(R. Robinson)은 경제적 제국주의론의 붕괴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용감한 사냥군들은 경제적 제국주의론이라는 노쇠한 禽獸를 구석지로 몰아넣어 이제 막 포살을 끝냈다.” 이 말은 H. Brunschwig의 *Mythes et réalités de l'impérialisme coloniale français, 1871-1914*에 대한 로빈슨의 서평에 들어 있다. *Journal of African History*, I, 1961, p. 409. 불록의 마르크스주의적인 경제적 제국주의론에 대한 비판도 두드러진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적인 경제적 제국주의론은 결국 오직 한 궤만이 있을 뿐이다. 재치 있게 말한다면, 그것은 지난 200년 간에 걸친 인류의 모든 해악을 자본주의로 돌리는 재간을 가졌다. 반공산주의적 저술가가 이를 거꾸로 뒤집어 강제노동과 정치적 숙청재판이 사회주의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한다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반대의 선봉에 나설 것이다.” Mark Blaug, “Economic Imperialism: Revisited”, in *Economic Imperialism*, (ed. K. E. Boulding & T. Mukerjee,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2), p. 155.
- 2) 캠프와 쾨만스키 등은 제국주의의 개념을 서로 다르게 씌으로써 일어나고 있는 혼란을 지적하면서 먼저 그 개념규정의 합의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T. Kemp,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in *Studies in the Theory of Imperialism*, (ed. R. Owen & B. Sutcliffe, Longman, 1972), pp. 15-22, Albert Szymanski, *The Logic of Imperialism*, (Praeger, 1981), pp. 5-7.

이론을 논파한 것으로 자랑해 왔다. 그러나 그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러한 단일모델 설정이 가능하고 정당한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말해 홉슨과 레닌의 이론이 ‘홉슨-레닌 테제’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논박하지 않은 셈이 될 것이다.

필드하우스(D. K. Fieldhouse)는 홉슨과 레닌에게 공통적으로 퍼부어진 기존의 비판들을 종합하면서 자신의 견해와 기존의 비판자들의 견해에 따라 양자의 이론에서 서로 다른 요소들을 걸러내고 공통된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을 추출하여 그것들을 단일 모형으로 결합하였다. 이것은 후대의 비판자들에 의해 ‘홉슨-레닌 테제’ (Hobson-Lenin Thesis)로 불리워지게 되었다.³⁾ 이러한 ‘홉슨-레닌 테제’의 정립 자체에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스톱스의 말처럼, 필드하우스는 홉슨과 레닌이론에 대한 ‘치명적 타격을 일목요연하게 가하기 위해서’ 이들의 이론에서 그가 본질적인 교의라고 생각했던 요소들을 ‘따로 떼어 놓았고’ 그것이 바로 ‘홉슨-레닌 테제’인 것이다.⁴⁾ 필드하우스의 이러한 ‘홉슨-레닌 테제’는 양자

3) 물론 필드하우스가 ‘홉슨-레닌 테제’라는 말을 직접 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홉슨이 사용했던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제국주의’라는 의미로 그가 사용했던 인용부호로 처리된 제국주의, 즉 ‘제국주의’는 사실상 홉슨과 레닌의 공통된 제국주의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그 비판자들이 지칭한 ‘홉슨-레닌 테제’는 사실상 필드하우스의 ‘제국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 K. Fieldhouse, “Imperialism: An Historiographical Revision” in *Economic Imperialism*, (ed. K. E. Boulding & T. Mukerjee,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2), pp. 95-123. 이 논문은 원래 *Economic History Review*, Vol. X IV, No. 2, 1961에 처음 실렸었다. 이 논문의 제목을 직역하면 “‘제국주의’: 그 역사적 수정”으로 될 것이나 필드하우스의 의도를 살린다면 ‘홉슨-레닌의 제국주의론에 대한 역사적 수정’으로 의역될 수 있을 것이다. 필드하우스가 양자의 공통적인 것이라고 이해했던 홉슨과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뒤에 스톱스와 셔트클라이프 등에 의해 ‘홉슨-레닌 모형’ 또는 ‘홉슨-레닌이론, 테제, 등으로 지칭되었다. B. Sutcliffe, *Studies in the Theory of Imperialism*, p. 315, E. Stokes, “Late Nineteenth-Century Colonial Expansion and the Attack on the Theory of Economic Imperialism: A Case of Mistaken Identity?”, *The Historical Journal*, Vol. XII, No. 2, 1969, pp. 286-7.

4) “Late Nineteenth-Century Colonial Expansion---” p. 288.

에 대한 기존의 비판들이 집중되었던 핵심적인 문제들을 명료하게 들어낼 뿐만 아니라 추후에 ‘홉슨-레닌 테제’ 논쟁을 유발하였다. 필드하우스는 홉슨과 레닌이론의 공통된 핵심이라고 생각한, 다시말해 ‘홉슨-레닌 테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홉슨과 레닌은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자본주의 국가안에 대외투자를 요구하는 거대한 압력이 있었고 이 압력이 1870년 이후 제국주의적 팽창을 일으켰던 주된 요인이었다고 주장한 점에서 양자는 서로 일치했다.”⁵⁾

필드하우스는 더 나가 “자본수출이 식민지 병합을 가져오는 원동력이었다.”는 명제를 홉슨과 레닌이론 모두에 공통된 死活的 특징으로 간주했다.

“제국주의론의 存廢가 달린 핵심적 특징은 1870년 이후 건설된 제국들이 유럽과 에메리카에 있는 경제적 선진국들의 선택이 아닌 필연이었다는 단언이다. 즉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국내에 형성된 과잉자본 때문에 세계의 저개발 지역으로 자본을 수출하도록 강제되었으며 장래의 혹은 현재의 투자만이 식민지를 획득 하려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다.”⁶⁾

필드하우스의 이러한 말은 결국 ‘홉슨-레닌 테제’가 ‘금융자본의 자본수출에 기초한 제국주의론’,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론’이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말은 홉슨과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대해 퍼부어졌던 기존의 비판들이 어떤 문제에 집중되어 왔는지를 잘 시사해주고 있다. 실증적 역사가들과 경제학자들은 그동안 이러한 ‘홉슨-레닌 테제’에 대해 ‘들이킬 수 없는 구체적 사실’,과 ‘정확한 이론적 분석’을 내세워 그 논거를 철저히 분쇄한 것으로 자부하며 이에 대한 끈질긴 지지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인다.⁷⁾

5) “Imperialism” ---” p.103.

6) “Imperialism” ---” p.105.

그러나 비판자들의 이러한 자신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비판의 대상으로 정립한 ‘홉슨-레닌 테제’가 양자의 이론들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것은 ‘홉슨-레닌 테제’가 그들의 이론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양자의 이론들을 하나의 모델로 설정하는 것이, 다시 말해 양자의 ‘핵심적 교의’라는 것들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들 이론의 전체적 맥락에서 타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간단히 말해, 그런 의문은 비판자들이 홉슨과 레닌의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양자를 동일시 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1969년 스투스가 ‘홉슨-레닌 테제’의 레닌 이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 (mistaken identification)를 비판한 뒤 이 테제 자체의 ‘정확성과 정당성’에 대해 비판과 반비판이라는 일련의 ‘홉슨-레닌 테제논쟁’을 야기하였다.⁸⁾ 이 논문은 이러한 논쟁에서 제기된 중요한 쟁점들을 분석, 종합하면서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답변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그것은 결국 ‘홉슨-레닌 테제’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될 것이다.

7) 여기서 홉슨과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피부어졌던 여러 측면에서 비판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류는 역사가들에 의한 비판으로 그 대표적인 것은 식민지 각축기(1870-1900년)에 일어났던 제국주의 열강의 자본수출과 새로운 병합지역의 붙일치를 구제적인 관련 통계에 의해 증명함으로써 ‘홉슨-레닌 테제’의 ‘사활적 논점’을 일거에 분쇄해버리는 것이다. 이런 류의 비판은 홉슨-레닌 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여 비판자들의 자신감을 북돋아 주고 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비판은 필드하우스가 말한 ‘역사가들의 포괄적 역사공식(all-embracing formulas)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병합의 개별사례 연구에 의해, 경제적 요인, 즉 자본투자가 그 병합의 주된 요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의 비판은 홉슨과 레닌의 경제이론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다. 예컨대 과소소비론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자본수출의 필연적 압력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럼으로써 제국주의의 경제적 동인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비판의 결과 ‘홉슨-레닌 테제’는 거의 붕괴된 것처럼 보인다. 엘드리지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우리는 비판자들의 자신감과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론을 고수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경멸을 엿볼 수 있다.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론은 진정으로 논증된 적이 없다. ---경제학자들과 역사가들의 철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은 아직도 살아서 개편과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지금도 살아있는 신화는 아마도 단순한 사실에 의한 비판에는 면역이 되었나 보다.” C. C. Eldridge, *Victorian Imperialism*, (Hodder & Stoughton, 1978), p.133.

II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홉슨의 이론으로부터 상당한 자양분을 흡수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레닌 자신이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닌은 그의 『제국주의론』 서문에서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1916년 쾰리히에서) 『제국주의론』을 저술했을 당시, 나는 당연히 프랑스와 영국의 문헌 부족으로 상당히, 그리고 러시아 문헌의 부족으로 심각하게 곤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영어로 된 제국주의에 대한 중요한 저술을 이용했다. J. A. 홉슨이 쓴 그 책은, 나의 견해로는, 대단한 주의를 기울일 만 한 저술이다.⁹⁾

레닌의 이러한 말은 홉슨의 『제국주의론』으로부터 그가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 영향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그것은

- 8) 스투스가 '홉슨-레닌 테제'의 정립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뒤 이러한 테제 논쟁에 적극 참여한 주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1982년 에더링톤은 이 테제가 홉슨의 이론에 대해서도 잘못된 이해였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여 대체로 비판자들의 주장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991년 엑쉬타인이 '홉슨-레닌 테제'가 결국 양자의 이론을 정확히 이해한 것이라는 반 비판을 제기했고 그럼으로서 이 테제는 다시금 활발한 쟁점거리로 등장한 셈이다. 이 밖에 이 논쟁에 부분적으로 참여한 학자들은 관련되는 논의에서 소개할 것이다. N. Etherington, "Reconsidering Theories of Imperialism", *History and Theory*, Vol. XX I, No. 1, 1982, A. M. Eckstein, "Is There a 'Hobson-Lenin Thesis' on late nineteenth-century Colonial Expansion?", *Economic History Review*, Vol. XL IV, No. 2, 1991.
- 9) V. 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in *Lenin: Selected Works*, (Moscow, Progress Publisher, 1977), p. 169. 레닌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의 『제국주의론』에서 주된 이론적 논파의 대상이었던 카우츠키의 허위를 공박하는데 홉슨의 진술을 이용하면서 '역사적 구체성' (historical concreteness)의 설명에서 홉슨이 카우츠키보다 우월하며 정직하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p. 235. 홉슨에 대한 레닌의 이러한 인정과 찬양이 홉슨의 제국주의론을 유명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양자의 이론을 단일모형의 이론으로 결합되게 할 만한 것이었는가? 필드 하우스는 홉슨과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그 핵심적 요소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홉슨-레닌 테제’를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사실상 레닌에 대한 홉슨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음을 시사했다.¹⁰⁾ 그렇게 본다면 ‘홉슨-레닌 테제’는 사실상 홉슨의 제국주의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

필드하우스를 비롯한 많은 레닌에 대한 비판자들은 홉슨의 제국주의론이 레닌의 그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즉 그들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홉슨의 이론을 수용해 단지 마르크스주의의 사상체계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파악하였다.¹¹⁾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레닌 이론의 독창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홉슨의 이론을 붉게 채색한 실천운동의 팜프렐 정도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얼핏 보았을 때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우선 양적으로 100페이지도 채안되는 ‘얇팍한 팜프렐’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제국주의론』을 집필하기 위해 준비했던 『제국주의론 노트』는 무려 8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것이다.¹²⁾ 엑쉬타인은 레닌의 『제국주의론 노트』에서 ‘홉슨의 『제국주의론』에

10) 필드하우스는 문제의 논문에서 홉슨이 레닌에게 영향을 준 정도를 드러내기 보다는 양자의 유사한 점을 추출하는데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영향의 정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필드하우스는 그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론의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했던 ‘자본주의 국가내의 자본수출의 압력’ 등 몇가지 명제들을 양자의 이론에서 끄집어낸 뒤 레닌이 별다른 수정을 가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그의 말을 유추해 본다면 레닌은 별다른 수정 없이 홉슨의 이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된다. 물론 필드하우스는 양자가 제국주의의 처방에서 ‘치유책을 처방한 의사, 홉슨’과 ‘피할 수 없는 재앙의 예언가, 레닌’을 대비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양자의 차이는捨象되었다. 그런 점에서 필드하우스는 제국주의의 진단에서만 양자의 유사성을 지적한 셈이다. “Imperialism: An Historiographical Revision”, pp.102-4.

11) 에컨데 코브너는 경제적 제국주의 개념의 발전과정을 고찰하는 가운데 경제적 제국주의의 특징적 주제가 홉슨에 의해 종합되어 하나의 이론체제로 정립되었으며, 다음으로 ‘홉슨의 이론이 레닌에 의해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틀안에 적용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Richard Koebner, “The Concept of Economic Imperialism”, in *Economic Imperialism*, (ed. K.E. Boulding & T. Mukerjee), p.66.

대한 요약이 가장 현저한 것임을 주장하나 정작 홉슨에 대한 요약은 1/25에 불과한 오로지 32페이지에 불과하다.¹³⁾ 물론 레닌에 대한 홉슨의 영향 정도를 따지는 문제는 홉슨과 레닌 이론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교의를 비교, 검토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나 논의의 초기단계에서 우선 이런 양적 분석도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필드하우스는 어떤 점에서 양자의 이론이 공통적이라고 보았는가? 필드하우스가 양자의 공통점이라고 제시한 것은 네가지 논점이었다. 그것은 첫째, 자본수출의 압력, 즉 해외투자와 식민지 병합사이의 인과연쇄 설정이었으며 다음으로 금융자본의 정부정책에 대한 결정적 영향력의 단정, 제국주의와 착취와의 연관성 수립이었다.¹⁴⁾ 그리고 끝으로 양자의 이론이 187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서구열강의 식민지 팽창을, 다시 말해 19세기 말의 식민지 각축을 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가정했다.¹⁵⁾ 이러한 공통점들이 '홉슨-레닌 테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통점들이 진정으로 홉슨과 레닌이론 모두에 일치하는가? 그리고 그것들은 양자의 이론의 전체적 맥락에서 '사활이 달린 핵심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논의의 전개에서 논리적으로는 처음 문제

12) *Notebooks on Imperialism, in Lenin: Collected Works, Vol. 39, (Moscow, 1968).*

13) "Is there a 'Hobson-Lenin thesis' ---", p. 312. 기계적이고 양적 분석이란 점을 명심하면서 『제국주의론 노트』의 색인에 자주 언급되는 저술가들을 분석해보면,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제외하고는 홉슨과 힐퍼딩, 그리고 카우츠키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뒤에 논의 되겠지만, 레닌의 홉슨에 대한 잦은 언급은 그의 사회주의 운동에서 이론적, 실천적 大敵이었던 카우츠키에 대한 비판과 관련되어 등장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레닌에게 '양심적인 개량주의자, 홉슨'의 논증이 '표면적 마르크스주의자인 카우츠키'를 공격하는데 매우 효율적일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홉슨에 대한 레닌의 의존의 성격을 평가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요망될 것이다.

14) "Imperialism: An Historiographical Revision", pp. 102-3.

15) 앞서 인용한 바 있었던 "제국주의론의 存廢가 달린 핵심적 특징은 1870년 이후 건설된 제국들이 유럽과 아메리카에 있는 경제적 선진국들의 선택이 아닌 필연이었다는 단언이다."라는 필드하우스의 말에서 '홉슨-레닌 테제'의 대상이 19세기 말의 식민지 팽창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논문 p. 3.

를 먼저 고찰하고 ‘홉슨-레닌 테제’가 그런 점에서 정당하다고 할 때, 다음 문제를 고찰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지만, 편의상 후자를 먼저 고찰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미리 말하자면, ‘홉슨-레닌 테제’의 설정이 완전히 오류라든가 아니면 완전히 정당하다든가 하는 명백한 선을 긋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전체적 맥락에서 ‘홉슨-레닌 테제’가 양자의 핵심적 교의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인가에 대해 고찰을 시작하기로 한다.

III

에더링턴의 문제제기가 있기 전까지 ‘홉슨-레닌 테제’는 그 전체적 맥락에서 홉슨의 제국주의론의 핵심교의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 이유는 홉슨이 주로 19세기 말의 식민지 팽창을 테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설명했다고 믿어져 왔으며, 필드하우스도 사실상 홉슨의 제국주의론을 기축으로 ‘홉슨-레닌 테제’를 정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뒤에 보게 되는 레닌에 대한 ‘근질긴 옹호’와는 달리 ‘정당하게 이해된’ ‘홉슨-레닌 테제’에 의해 홉슨은 거의 孤立無援의 상태에서 치열한 비판에 놓였고 ‘지적인 사기꾼’의 지경으로 전락할 지경이었다.¹⁶⁾ 심지어 ‘홉슨-레닌 테제’의 ‘잘못된 이해’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스톡스도 이 테제의 레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비판한 것이었을 뿐 홉슨에 대해서는 오히려 테제가 정당하게 이해한 것으로 생각했다.¹⁷⁾

‘홉슨-레닌 테제’는 대체로 대상시기와 대상지역, 그리고 제국주의의

16) 홉슨이 식민지 팽창과 자본투자사이의 인과적 연쇄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양자에 관련된 통계의 분석에서 필드하우스는 그 오류를 들추어 내면서 그 통계의 해석 방식을 ‘일종의 지적 기만’ (an intellectual conjuring trick)이라고 말했었는데 그 이후로 여러 비판자들이 이를 인용하고 있다. D. K. Fieldhouse, “‘Imperialism’ ---” pp. 99-100. L. H. Gann & P. Duigan, *Burden of Empire*, (Pall Mall Press, 1967), p. 41.

17) “Late Nineteenth-Century Colonial Expansion---”, p. 286.

개념의 문제 등 세가지의 문제에서 홉슨의 제국주의론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양자는 제국주의의 대상시기와 대상지역을 187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서구열강의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대한 식민지 팽창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실제로 홉슨은 그의 『제국주의론』의 여러 곳에서 이를 되풀이 강조하였다.¹⁸⁾ 홉슨에 있어서 제국주의의 시기와 대상의 문제는 에더링튼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거론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에더링튼도 이러한 년대기와 대상지역의 설정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오직 홉슨의 한 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홉슨의 제국주의론에 코브덴식의 제국주의 비판 테제와 과잉자본의 투자에 입각한 제국주의 테제라는 두개의 이론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한다.¹⁹⁾ 그에 따르면 전자가 19세기 말의 식민지 팽창을 설명하는 이론이라면, 후자는 세기의 전환기의, 구체적으로 말해 1895년 제임슨 습격사건(Jameson Raid)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트러스트와 보호관세, 이에 따른 집중하는 군국주의를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에더링튼이 보기에 ‘홉슨-레닌 테제’는 오직 후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²⁰⁾ 따라서 ‘홉슨-레닌 테제’는 홉슨의 이론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정확한 이해’에 도달한 셈이 된다. 그리하여 에더링튼은 과잉자본의 수출에 기초한 홉슨의 경제적 제국주의론은 과거의 영토적 획득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불길한 징조들, 즉 보호무

18) 홉슨은 신제국주의가 대체로 1870년경에 시작되어 1880년대 중반, 정확히는 1884년부터 고조되었음을 명백히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병합지역과 무역, 인구, 투자, 군비 등에 대한 통계의 분석에서도 대체로 1870년을 기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제국주의의 시기를 19세기 말로 간주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Imperialism, p.19.

19) "Reconsidering Theories of Imperialism", pp.17-8.

20) 에더링튼은 "만약 높은 관세장벽에 의해 점차로 분할되어가는 세계에 대한 대외지향적 투자의 원동력이 없다면, 홉슨의 경제적 논증은 코브덴적 테제, 다시 말해 관료적인 이해의 그리고 상층계급 이해의 당파가 오직 그들 자신에게만 이득을 주는 호전적, 팽창주의적 정책을 촉진한다는 테제로 줄어들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Reconsidering Theories of Imperialism", p.20.

역, 독점체들, 군국주의와 영토적 확대, 그리고 전체적 정부의 출현 등의 요인들을 서로 연결하는 重力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²¹⁾

그러나 이러한 에더링튼의 주장에 대해 최근 엑쉬타인은 홉슨의 ‘투자에 유도된 제국주의론’이 1900년경의 사건들의 분석에서 형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홉슨은 이 이론을 무리하게 과거에 소급적용했다고 반박하고 있다.²²⁾ 에더링튼은 투자에 유도된 제국주의론이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의 경제적 기원의 분석에만 국한된다고 말했지만 홉슨은 이를 이보다 훨씬 전인 1881년 프랑스의 튀니지 병합이나 1882년 영국의 이집트정복의 분석에도 적용하고 있음을 그는 강조했다.²³⁾ 그는 또한 홉슨의 『제국주의론』 가운데 에더링튼에 의해 홉슨의 코브덴적 테제를 설명하는 장으로 분류된 제4장: “제국주의의 경제적 기생자들”에서도 투자에 관련된 이해가 가장 강력했음을 지적했다.²⁴⁾ 결국 홉슨의 이론을 분할함으로써 다시 말해 홉슨의 ‘투자 테제’와 19세기 말의 식민지 팽창과의 연결고리를 절단함으

21) “Reconsidering Theories of Imperialism”, p. 24.

22) “Is there a ‘Hobson-Lenin thesis’ ---”, pp. 301-4.

23) 엑쉬타인 이전에 케인도 이미 동일한 비판을 하고 있다. 즉 그에 따르면 에더링튼은 홉슨의 주된 관심이 19세기 말의 열대 아프리카가 아닌 세기 전환기의 남아프리카와 중국에 있었다고 강조하지만, 1882년 영국의 이집트 정복은 ‘투자이론’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국주의가 영국의 금융적 이해의 도에 넘치는 힘의 결과였다는 급진적 견해를 최초로 명백히 정식화 되도록 이끈 것은 바로 1880년대 중반의 이집트점령이었다. 이러한 급진적 전통의 상속자인 홉슨이 금융적 움모에 기초한 제국주의론을 정립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Peter Cain, “J. A. Hobson, Financial Capitalism and Imperialism in Late Victorian and Edwardian England”, *The Journal of Imperial and Commonwealth History*, Vol. XIII, NO. 3, 1985, p. 3. 케인의 이러한 지적은 동시에 홉슨의 투자 유도 제국주의론의 기원을 미국인, 윌셔(Wilshire)에 두고 있다는 에더링튼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즉 케인은 홉슨의 그것이 오히려 전통적인 영국의 급진주의, 특히 코브덴주의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obson, Wilshire and the capitalist theory of capitalist imperialism,”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17, No. 3, 1985, “J. A. Hobson, Cobdenism, and the Radical Theory of Economic Imperialism, 1898-1914”, *The Economic History Review*, Vol. XXXI, 1978.

로써 그를 ‘홉슨-레닌 테제’라는 연옥에서 구출해내려던 에더링튼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 것 같다. 더구나 홉슨이 사용한 제국주의의 개념 역시 에더링튼에게 매우 불리한 것처럼 보인다.

홉슨이 사용한 제국주의의 의미는 ‘테제’가 가정한 그것과 일치하는가? ‘홉슨-레닌 테제’의 정립 자체에 대해 최초의 비판을 시작했던 스톡스는 “제국주의가 식민주의와 동의어임을, 다시 말해 비 서구세계에 대한 서구세계의 정치적 통제의 확대와 동의어임을”을 ‘홉슨-레닌 모델’은 가정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레닌에게는 부당하나 홉슨의 경우 타당한 가정이라고 주장하였다.²⁵⁾ 그는 “영국의 팽창에 거의 절대적으로 주목함으로써 제국주의를 식민주의와 동일어로 만든 사람이 바로 홉슨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홉슨이 영국의 식민지 팽창에 집중했다는 사실과 그의 저술이 내포는 魔力이 대다수 영어권 비판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제국주의의 고전적 모형에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란 두 용어가 동의어로 사용된 것으로 가정하게 했음”을 지적하였다.²⁶⁾ 즉 스톡스에게는 홉슨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영어권 연구자들에게 그런 관념을 심어준 결정적인 장본인으로 되며 따라서 홉슨

24) 에더링튼은 홉슨의 『제국주의론』에서 제2장:제국주의의 상업적 가치와 제4장을 코브덴적 테제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그리고 제6장:제국주의의 경제적 뿌리를 자본수출 테제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분류하였다. “Reconsidering Theories of Imperialism”, pp.17-8.

25) “Late Nineteenth-Century Colonial Expansion---”, p. 289.

26) “Late Nineteenth-Century Colonial Expansion---”, p. 294. 스톡스의 이러한 주장은 필드하우스 자신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동일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 잘 뒷받침되고 있다. 즉 그는 다른 저술가와 함께 식민주의에 대해 사전적 정의를 내리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식민주의는 고대 그리스 식민지들이나 아메리카 식민지들처럼 본국주민의 해외정착에 연관되는 ‘식민화’(Coloniation)라는 용어와 더 이상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식민주의는 이제 제국중심지와 해양으로 분리된 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에 대한 지배와 동일시되었다. 식민주의는 특히 유럽인에 의한 이민족,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통제를 의미한다.” D.K. Fieldhouse & Ruppert Emers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Vol. Ⅲ, p.1.

과 관련해서 ‘홉슨-레닌 테제’는 정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에
게는 홉슨이 ‘19세기 말 영국의 식민지 팽창에 전적으로 주목’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홉슨이 식민주의라는 의미로 제국주의를 사용했다면 에
더링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홉슨과 식민주의를 더욱 분리시킬 수 없음이
분명해 진다.

그러나 홉슨이 제국주의를 식민주의와 동일어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약
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홉슨은 두 용어 모두에 이상적인 의미와
현실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는 그 원래의 의미에서
식민주의가 인구 회소지에 대한 영국의 확대(Greater Britain)라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백인 자치령에 대한 영국인의 식민
에 대해 자연스런 문명의 확대 등의 이유로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
였다. 그러나 그는 19세기 말기에 들어 식민주의는 동화될 수 없는 이민
족에 대한 전제적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락했음을 지적하고 이를 제
국주의와 일치시켰다. 또한 그는 제국주의의 의미 역시 원래는 세계평화
와 보편적 문명을 내세우는 하나의 제국의 추구라는 좋은 이상을 가진 것
으로 생각했지만 제국주의 역시 19세기 말에 타락하고 왜곡됐음을 지적하
였다.²⁷⁾ 즉 홉슨은 한편으로 이상적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다른 편으로
현실적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각각 대비시키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건전한(Sane) 제국주의’가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19세기 말
식민지 각축의 시대에도 존재했음을 예증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국주
의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기까지 했다. 물론 이러한 의미에서의 제국주의
는, 즉 홉슨의 ‘건전한 제국주의’는 더이상 제국주의가 아니라 국제주의
를 의미했다.²⁸⁾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홉슨이 제국주의나 식민주의를
19세기 말의 식민지 팽창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는 주장은 오류가 될 수

27) J.A.Hobson, *Imperialism: A Study*, (Unwin Hyman, 1988, 초판은 1902년), pp.3-13, p.232.

28) 이에 대한 논의는 필자의 논문, “홉슨(J.A.Hobson)의 ‘윤리적 제국’ 「나중 일 박사 정년기념논총」, (1992)을 참고할 것.

있다. 그러나 홉슨의 경제적 제국주의론은 사실상 현실의 '침략적'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설명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그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²⁹⁾ 즉 '홉슨-레닌 테제'의 이러한 가정은 홉슨이 '부정적 의미'에서 두 용어를 사용했을 때 정당한 것이 된다. 이처럼 홉슨이 제국주의의 개념을 식민주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그의 경제적 제국주의론이 19세기 말의 식민지 팽창을 주로 설명하는 이론이었다는 데 또 다른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식민지 팽창, 다시 말해 식민주의는 1900년경에는 거의 완료되기 때문이다. 결국 '홉슨-레닌 테제'는 홉슨이론의 전체적 맥락에서 그 핵심적 교의를 정확히 이해한 것으로 된다.

이제 남은 문제는 '홉슨-레닌 테제'가 레닌이론의 전체적 맥락에서 핵심적 교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일이다. 홉슨과 레닌이론으로부터 '핵심적인 공통적 특징을 추출해내는 과정에서 필드하우스는, 물론 자신의 목적상 이를捨象해버리기는 했지만, 양자의 여러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무엇보다 자본주의 국가 내부에 있는 자본수출의 압력의 본질에서 양자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그는 지적하고 있다.³⁰⁾ 우리

29) 홉슨의 『제국주의론』은 제1부의 "제국주의의 경제학"과 제2부의 "제국주의의 정치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대체로 제1부는 '침략적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경제적 분석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사용된 제국주의의 의미는 식민주의와 거의 동일한 것이다.

30) 필드하우스는 이런 압력이 홉슨의 경우는 과소소비(Under-consumption)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회개혁에 의한 부의 균등한 분배로 제거될 수 있는 것이었음을 지적했다. 이럴 경우 해외투자의 필요성이 소멸하고, 따라서 제국주의는 그 動因을 상실하게 된다. 레닌의 경우 그 압력은 자본주의의 독점단계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것임을 그는 지적하였다. 이 경우 제국주의는 불가피한 것이 된다. 그러나 필드하우스는 양자가 '세밀한 원인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해외투자 압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식민지 팽창의 원인으로 보는 데 일치했음을 강조하면서 그 차이점을捨象해버렸다. 그에게는 그 先行原因에 관계 없이 자본수출의 압력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했던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그 압력이 식민지 병합을 가져온다는 명제의 오류를 증명하는데 전적인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드하우스의 이러한 추상화 방식은 그것의 일정한 한계를 시사해줄 뿐만 아니라 바로 양자의 그러한 차이점에서 레닌에 대한 홉슨의 영향력이 결정적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는 필드하우스가 레닌이론에서 공통점이라고 생각한 부분, 그래서 ‘홉슨-레닌 테제’를 형성하는 부분과 그 차이점이라고 떨어져 내버린 부분들 가운데 어느 부분이 레닌의 이론의 전체적 맥락에서 더 타당하고 본질적인 것인가를 뒤에 검토할 것이다.

필드하우스가 레닌의 이론에서 공통적인 요소들로 추출한 것은 187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있어서 식민지 각축에 대한 설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었다. 필드하우스는 사실상 레닌의 이론에서 이 시기의 식민지 각축을 홉슨과 유사하게 설명하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홉슨-레닌 테제’를 정립한 것이다. 필드하우스는 아마도 그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레닌 이론이 1870년에서 1900년 사이의 식민지 팽창을 주로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³¹⁾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홉슨-레닌 테제’의 네번째 공통점이다. 이는 필드하우스가 의식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기보다 ‘홉슨-레닌 테제’의 설정 자체에 대한 비판자들이 문제의 제기를 위하여 그의 ‘테제’에서 추출해낸 것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테제’의 설정 자체에 대한 비판자들이 제기하는 핵심적인 문제, 즉 레닌의 이론이 진정으로 19세기 말의 식민지 각축을 주로 설명하는 이론인가라는 문제와 마주치게 된다.

레닌에 있어서 제국주의의 의미가 ‘홉슨-레닌 테제’가 가정하였듯이 진정으로 식민주의를 의미하는 것인가? 레닌의 제국주의의 개념은 분명히 이러한 식민주의를 의미하지 않았다. 레닌에 있어 제국주의는 식민주의보

“Imperialism’: ---” p.102.

31) 왜냐하면 필드하우스는 레닌이 ‘금융자본’의 성립시기를 1900년 이후로 못박아 놓고도 금융자본의 자본수출의 필요성과 대외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그앞 시대인 식민지 각축기에 미리 앞당겨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는 사실은 이를 시사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필드하우스가 레닌이론의 주된 설명대상을 19세기 말의 식민지 팽창으로 단정하고 이러한 단정위에서 레닌의 이론을 재단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자본주의의 독점단계로의 이행기’에 대한 분석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단정은 레닌의 그런 설명부분 보다는 오히려 식민주의를 제국주의와 동일시 해 온 홉슨과 레닌이론에 대한 비판자들의 전통에 입각해 있는 듯이 보인다. “Imperialism’ ---”, pp.107-8.

다 훨씬 광범한 의미를 가진 것이다. 즉 그것은 그 경제적 본질로서 독점 자본주의를 의미하며 그 정치적 상부구조로서 자유 아닌 지배를, 다시 말해 반동과 민족적 억압, 그리고 병합을 의미했다. 간단히 말해 레닌에 있어 '제국주의는 최후단계에 있는 자본주의' 그 자체를 의미했다.³²⁾ 레닌은 제국주의를 사실상 식민주의로 간주했던 카우츠키에 대한 비판에 엄청난 정력을 쏟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제국주의가 식민주의와 결코 동일시 될 수 없음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다.³³⁾ 따라서 주로 마르크스주의 계열의 비판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흡슨-레닌 테제'의 이러한 '잘못된 同一視'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셔트클라이프가 지적하듯이, 그들에게 레닌의 견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도 중대한 오해는 그의 제국주의가 식민주의와 동일하다고 보는 것, 즉 그것이 19세기의 식민지 각축과 연관된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었다.³⁴⁾

스톡스는 이러한 개념적 차이를 언급하는 대신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실

- 32) *Imperialism*, 제7장:자본주의의 한 특수한 단계로서 제국주의, 제10장:제국주의의 역사적 위치. 이에 대한 논의는 필자의 논문, "레닌 제국주의론에 대한 '실증적 비판'과 그 한계:19세기 말의 식민지 팽창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蔚山史學』, 제2집, (1988)을 참조할 것.
- 33) 카우츠키는 여러 면에서 레닌과 다르게 제국주의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국주의는 고도로 발달한 산업자본주의의 한 산물이다. 제국주의는 그 지역에 어떤 주민이 살고 있는지 상관없이 농업지역을 더욱 더 병합하고 예속시키려는 모든 산업국가의 노력인 것이다." 林直道, 中川信義, "제국주의 비판" 『제국주의론』, (眞木實彦 역음, 박민 옮김, 한울, 1986), p.288에서 재인용. 이러한 카우츠키의 제국주의는 원줄로가 지적하듯이, 식민주의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는 자본주의 열강들 사이의 본질적인 경쟁과 갈등대신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E. M. Winslow, *The Pattern of Imperi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8), p.155. 그러나 레닌은 제국주의가 농업지역 뿐만 아니라 공업지역도 병합하려고 하며 그것의 본질적 특징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기 때문에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면서 카우츠키가 이런 필연성을 부정하였다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레닌은 흡슨이 '역사적 구체성'의 설명에서 카우츠키 보다 우월하고 정직하다고 추켜 세웠다. 즉 흡슨이 근대 제국주의의 특징으로 '여러 제국주의들 사이의 경쟁'을 규정한 것은 이러한 갈등의 필연성에 대한 보다 진일보한 논증으로 레닌은 받아들였던 것이다. *Imperialism*, pp.234-5.

제적인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그는 레닌이론이 ‘열대의 제국’을 얼마나 자본주의의 고도단계로 간주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레닌의 제국주의는 아프리카의 식민주의 뿐만 아니라 힐퍼딩(R. Hilferding)의 이론에 기원을 둔 유럽대륙의 팽창주의적 군국주의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레닌의 제국주의의 경우 ‘경제적 분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간접지배의 형태’를 포함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사실상 ‘직접지배의 형태’만을 언급한 홉슨과 차이점을 시사하였다.³⁵⁾

이러한 제국주의의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제국주의’의 출현시기에 대한 문제였다. ‘홉슨-레닌 테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 첨예하게 집중되었던 곳이 바로 여기였다. ‘홉슨-레닌 테제’의 제국주의는 식민주의와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각축이 시작되었던 1870년경에 제국주의가 시작된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레닌이 금융적 독점자본주의, 즉 제국주의는 스톡스등의 비판자들이 강조하듯이 식민지 분할이 거의 완료된 1900년경에 출현했다. 따라서 ‘홉슨-레닌 테제’는 제국주의의 년대기에서 커다란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된다.³⁶⁾ 또한 레닌의 제

34) B. Sutcliffe, *Studies of the Theory of Imperialism*, p. 313. 캠프도 이와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다. “레닌이 의미했던 제국주의는 그에 대한 반대자와 비판자들에 의해 노골적으로 혹은 암암리에 사용되었던 제국주의의 정의, 즉 그것의 특징적 양상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그 대상시기를 확대한 정의와 명백히 다르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T. Kemp, *Theories of Imperialism*, (Denis Dobson, 1967), p. 76.

35) “Late Nineteenth-Century Colonial Expansion---”, pp. 294-6. 레닌이 간접지배를 제국주의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은 자유무역 제국주의론자들의 주장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러나 이들은 홉슨과 레닌 등의 고전적 제국주의 이론들이 다양한 정도에 걸쳐 있는 간접지배의 형태를 무시하고 오직 직접 지배, 다시 말해 공식적 제국(formal empire)을 설명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J. Gallagher, R. Robinson, “The Imperialism of Free Trade”, *The Economic History Review*, Vol. VI, No. 1, 1953. 필자의 논문, “빅토리아 후기(1870-1903)의 대외팽창 성격: 자유무역 제국주의론의 연속성 테제를 중심으로” 『蔚山史學』, 장간호, (1987)을 참고할 것. 그러나 여기서 보듯이 레닌의 경우 이들의 비판은 그들의 레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주의는 ‘흡수-레닌 테제’의 제국주의와 년대기적 先後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과적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레닌은 열강들에 의한 세계분할의 완료, 달리 말하면 식민주의의 완성이라는 전제조건에서 재분할 투쟁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⁷⁾ 이런 점에서 19세기 말의 식민지 각축은 레닌이 의미하는 제국주의가 아니며 그것의 序曲이요 전제조건이었다는 셔트클라이프의 지적은 매우 적절한 것이다.³⁸⁾

이렇게 봤을 때, ‘흡수-레닌 테제’는 레닌의 경우 ‘잘못된 이해’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필드하우스와 그 이전의 비판자들은 적어도 레닌의 이론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의 핵심적 교의를 추출하지 못한 채 이

- 36) E. Stokes, "Late Nineteenth-Century Colonial Expansion---", p. 289. 사실 레닌은 "19세기가 끝날 무렵의 호황과 1900년에서 1903년사이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주의는 제국주의로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제국주의의 구체적 출현시기를 분명히 명시하였다. *Imperialism*, p. 181. 이 밖에도 제국주의의 출현시기를 명시하는 레닌의 언급은 같은 책, p. 180, p. 200, p. 223 등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레닌에 있어서 제국주의의 대상시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 37) 레닌은 1876년에서 1900년사이의 통계에 입각해 이 시대의 특징적 양상이 아프리카와 폴리네시아의 분할이었다는 주판(Supan)의 결론을 확대해 세계분할의 완료와 재분할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레닌의 말이다. "---지금 고찰하고 있는 시대의 특징적 양상은 전 세계의 '최종적' (final) 분할이다. 여기서 말하는 '최종적 분할'이란 자본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정책이 세계의 미점유된 영토의 장악을 '완료' 했다는 의미이며 '재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그것이 가능하고 필연적이라는 의미이다." *Imperialism*, p. 223. 이렇게 보았을 때 레닌의 제국주의는 세계를 분할해가는 과정, 즉 식민주의가 아니라 그 분할 과정의 완료에서 시작되는 재분할 투쟁의 필연성에 강조점이 놓여 있음이 분명해진다. 레닌의 카우츠키에 대한 비판의 중점도 바로 이러한 필연성, 다시 말해 열강들사이의 갈등과 투쟁의 격화의 필연성에 대한 후자의 부정에 놓여 있었다. pp. 234-7.
- 38) B. Sutcliffe, *Studies in the Theory of Imperialism*, pp. 314-5. 스텝스 역시 이와 같은 논지를 전개하였다. 즉 그는 흡수와 레닌의 이론에 대한 또 다른 현대의 강력한 비판자로 '자유무역 제국주의론'을 창시했던 켈러거, 로빈슨과 마찬가지로 레닌도 '제국주의가 식민지 분할의 원인이 아닌 결과'였다고 주장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레닌이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시사했다. "Imperialism and the Scramble for Africa: the New View", in *The Robinson and Gallagher Controversy*, (ed. Wm. R. Louis, A Division of Franklin Watts, 1976), p. 189.

를 비판해온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는 그들이 레닌의 이론을 무리하게 홉슨의 이론에 덧붙이려고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레닌이 홉슨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자료를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최대의 논적이었던 카우츠키의 공격에서 홉슨을 인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정한 한계내에서였다. 사실 레닌이 카우츠키를 비판한 최대의 이유는 자신의 주된 연구의 목적인 제국주의의 필연성을, 다시 말해 자본주의 열강의 갈등과 투쟁, 더 나아가서는 세계전쟁의 필연성을 부정한다는 점이었다.³⁹⁾ 홉슨 역시 본질적으로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필연적 발전단계로 보지 않고 사회개혁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왜곡된 상태’로 간주했으므로 그런 점에서 카우츠키의 논리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레닌은 잘 알고 있었다. 레닌은 홉슨의 ‘개혁의 가능성’을 순진무후한 소시민적 비판의 진수라고 조롱했던 것이다.⁴⁰⁾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필드하우스도 ‘필연성’의 문제에서 홉슨과 레닌의 이론이 차이가 있음을 인식했다. 그

39) 예를 들어 카우츠키가 ‘제국주의를 금융자본에 의해 선택된 정책’으로 규정한 점, 그리고 제국주의의 대상에서 공업지역을 배제한 농업지역에만 국한시킨 점, 초제국주의에 의한 제국주의 열강의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 등은 레닌에게는 제국주의의 필연성을 부정함으로써 이에 따르는 불가피한 반목과 갈등을 은폐하려는 노력으로 보였다. 간단히 말해 카우츠키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필연적 모순을 은폐하여 자본주의의 존속의 가능성을 주장함으로써 국제사회주의 운동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그의 이론적, 실천적 논적이 되는 카우츠키의 비판에 ‘양심적인 부르조아 개량주의자’, 홉슨의 논증이 자주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레닌의 홉슨에 대한 본질적 체우가 될 수 없다. 레닌이 여기서 홉슨의 논증을 이용했던 부분은 ‘경쟁하는 여러 제국들의 존재’와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자본의 우세’였고 이는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의 가능성과 산업자본에 대한 강조에 대한 반증으로 제시되었다. Lenin, *Imperialism*, pp. 234-7. 캄프도 제국주의의 필연성에 대한 카우츠키의 부정에 대한 비슷한 논지를 펴고 있다. T. Kemp, *Theories of Imperialism*, p. 76.

40) 레닌은 “제국주의의 비판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제국주의의 토대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혹은 반대인지 그리고 제국주의가 일으키는 대립이 심화된다고 보는지 혹은 완화된다고 보는지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홉슨을 비롯한 소시민적 비판자들은 ‘우스꽝스러운 개혁안’을 내세워 그 본질을 은폐함으로써 은밀하게 제국주의를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Imperialism*, pp. 248-9. 이 밖에도 레닌은 홉슨의 ‘국제적 제국주의’ (inter-imperialism)를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와 동일시 하면서 비슷한 논지의 비판을 하고 있다. p. 254.

렇지만 그는 그가 추출한 ‘레닌의 공통점’이 그의 전체적 이론의 맥락에서 이러한 ‘떨연성’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간과했다. 우선 제국주의의 개념의 문제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셔트클라이프가 말하듯이 레닌이 흡슨에게 빚진 것은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과 자본수출과의 관계에 대한 증거였지, 이론적 관점은 아니었다.⁴¹⁾ 개념상의 이러한 중대한 차이를 무시하고 흡슨과 레닌이론을 ‘흡슨-레닌 제국주의론’이라는 단일모델로 결합한 것은 그의 말마따나 신화로 남을 수 있다.

IV

‘흡슨-레닌 테제’가 레닌의 이론의 전체적 맥락에서 그 핵심적인 교의를 정확히 추출해내지 못했음은 분명해졌다. 그것은 사실상 흡슨테제로 축소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는 ‘흡슨-레닌 테제’가 전면적으로 오류임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비록 그것이 레닌이론의 전반적 맥락에서 그 핵심적 교의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할 지라도, 일정한 한계내에서 ‘흡슨-레닌 테제’가 흡슨과 레닌 이론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고찰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몇가지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레닌이 그의 『제국주의론』에서 19세기 말 식민지 팽창을 설명했는가? 만일 그렇다면 레닌의 이에 대한 설명과 흡슨의 설명은 ‘흡슨-레닌 테제’의 자본수출에 기초한 제국주의론과 동일한 것인가? 흡슨의 경우 우리는 이미 그의 주된 설명이 19세기 말의 식민주의였음을 확인했고 레닌의 경우 1900년이 이후에 수립된 ‘자본주의의 독점단계’, 즉 ‘제국주의’가 그의 주된 관심의 영역이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레닌의 주된 관심이 ‘제국주의’에 있었다는 말은 반드시 그가 ‘식민주의’에 무관심했

41) *Studies in the Theory of Imperialism*, p.315.

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레닌은 이 시기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왜냐하면 1870년에서 1900년 사이의 기간, 즉 식민지 각축의 시대는 그에게는 자본주의의 경쟁적 단계에서 독점적 단계, 다시 말해 금융자본으로의 이행기였기 때문이다. 그의 유명한 제국주의의 특징적 양상들이 바로 이 시기에 점진적으로 성장하였으므로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⁴²⁾ 여기서 논의될 식민주의에 해당하는 특징은 ‘열강의 세계분할의 완료’로서 5가지 특징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만 레닌의 이에 대한 관심은 이보다 더 큰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5가지의 특징들은 ‘독점체에 의한 생산과 자본의 독점’과 ‘소수 자본주의열강에 의한 식민지 독점’으로 집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³⁾ 이는 ‘식민지 독점’의 과정에 대한 레닌의 관심도 그 만큼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⁴⁴⁾

42) 레닌이 경제적 측면에서 본 자본주의의 특징적 양상은 다음과 같다. 즉 그것은 첫째, 고도의 생산 및 자본의 집적에 기초한 독점체의 형성과 이것의 경제생활의 지배, 둘째,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결합에 의한 금융자본의 성립과 이에 기초한 금융과두제의 수립, 셋째, 상품수출과 구분되는 자본수출의 결정적 중요성 획득, 넷째, 국제적 독점체의 형성과 세계의 경제적 분할, 다섯째, 자본주의 열강에 의한 세계분할의 완료 등이다. *Imperialism*, p.232.

43) 本間要一郎은 결국 5개의 특징들이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단순한 양적 변화가 아니라 자본주의와 상품생산 일반의 기본적 특질인 ‘자유경쟁’의 대립물인 ‘독점’으로의 질적 轉化임을 지적하면서 이를 두가지 독점으로 집약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역사적 위치”, 『제국주의론』(眞木實彦 엮음), p.248. 레닌 자신도 자본가들이 구제는 독점에 있다고 트러스트 등을 형성하는 것처럼 부르조아 정치가들도 구제는 독점에 있다고 아직 분할되지 않은 세계의 專有를 독촉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 데 이는 레닌 역시 두가지 독점으로 집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음을 시사해준다. *Imperialism*, pp.224-5.

44) 최근 ‘홉슨-레닌 테제’ 자체를 부정하는 비판들에 전면적인 반격을 시도했던 엑쉬타인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전문용어로서 ‘제국주의’ 개념을 제껴놓고 레닌이 실제로 19세기의 식민지 팽창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이 더욱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제국주의의 개념상의 차이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방식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고찰될 것이다. A. M. Eckstein, “Is there a ‘Hobson-Lenin thesis’ on late nineteenth-century colonial expansion?”, p.308.

이제 우리는 홉슨과 레닌이 19세기 말 열강의 식민지 각축, 달리 말해 세계분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홉슨-레닌 테제’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아직 유효한 것이 된다. 우리는 이제 홉슨과 레닌의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론에 대한 비판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금융자본의 자본수출이 식민지 병합의 원동력이었다.”는 명제에 대해 고찰하게 되었다. 이것이 ‘홉슨-레닌 테제’의 핵심적인 품목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홉슨은 이러한 ‘터무니 없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상당히 외롭게 매도를 당해왔지만, 근자에 들어 홉슨의 누명을 벗겨주려는 일련의 노력으로 상당히 그의 지위가 복권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홉슨은 진정으로 자본투자가 식민지 병합을 가져오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생각했는가? 필드하우스도 선진 자본주의국가들 내부에 거대한 투자 압력이 존재하고 있었음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최대의 병합지역으로 되었던 열대 아프리카로 간 것이 아니라 주로 선진국과 기존의 백인 정착식민지로 갔음을 기존의 통계연구들을 인용해 비판하고 있다.⁴⁵⁾ 홉슨에 대한 비판자들이 자신하듯이 병합예정지와 투자지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때, 얼핏보기에 ‘투자’ 제국주의론은 당연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홉슨이 과연 양자를 인과적으로 연관시켰는가? 포터의 말처럼 ‘자신의 과도한 언급과 모호성 때문에 오해를 빚게 된 것이기 때문에 홉슨이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할 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홉슨은 영국의 해외투자의 대부분이 병합예정지로 갔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⁴⁶⁾ 홉슨의 말을 들어 보자.

45) “‘Imperialism’ ----”, pp.108-9.

46) B.Porter, *Critics of Empire*, (Macmilan, 1968), p.216. 포터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해외투자와 식민지 병합과의 연관을 시사하는 홉슨의 잦은 언급과 필드하우스가 ‘지적 기만’이라고 불렀던 홉슨의 자의적인 투자통계의 제시방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Hobson, *Imperialism*, p. 51, p. 62.

“영국의 경제적 이해가 있는 모든 새로운 지역을 포괄하기 위해 단호하게 영 제국을 확대하려는 정책은 물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국제적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형태들은 어떤 간섭도 불가능한 강력한 문명국에 대한 투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에 있는 영국국민의 재산과 투자는 비록 그것이 진정한 간접적인 정치적 국제주의를 지향하는 경제적 세력이지만, 국가들의 정치적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⁴⁷⁾

이 말은 영국의 해외투자가 1870년대 이후에 획득한 새로운 식민지를 지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홉슨이 잘 알고 있었음을 분명히 한다.

그렇다면 필드하우스를 비롯한 홉슨의 비판자들이 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단정을 하게 되었는가? 이들이 ‘해외투자와 병합지의 불일치’를 홉슨에 대한 비판에서 매우 중시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그런 오해에 이르게 된 배경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사실 홉슨은 『제국주의론』에서 제국주의의 주요 원인을 설명하면서 “제국주의에서 단연 최고로 중요한 경제적 요인은 투자에 관련된 영향력이”라든가 “제국주의가 왕성했던 시기는 대의

47) “Capitalism and Imperialism in South Africa”, *The Contemporary Review*, Vol. LXXVII, 1900, p.2. 미첼은 맨 처음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문제의 『제국주의론』에서도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홉슨의 언급을 ‘발굴’해 냈다. H. Mitchell, “Hobson Revisited”, *Journal of History of Ideas*, Vol. XXVI, 1965, p.412. 미첼이 발굴한 홉슨의 말이다. “외국에 자본을 투자하는 최근의 관행은, 오늘날(today) 영국의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계급들이 영제국의 외부에 투자된 자본으로부터 자기들의 소득의 많은 그리고 계속 늘어가는 부분을 획득할 정도로 이제(now) 성장했다. 자신들이 정치적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영국의 부유한 계급의 이러한 점증하는 이해는 현대정치에서 혁명적인 힘이다. 이것은 그들이 산업적 이해를 가진 그런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에 간섭하기 위해 영국의 시민으로서 자기들의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지속적으로 점증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Imperialism*, pp.357-8. 홉슨의 이 말은 앞서의 언급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홉슨도 투자가 병합예정지를 외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우리는 명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쉽게 연결지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필드하우스 등의 비판자들이 앞의 홉슨 논문을 읽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오해할 만한 사정도 이해할 만하다. 미첼이 지적한 이러한 홉슨의 언급은 ‘홉슨-레닌 테제’ 자체의 비판자들이 반드시 챙기는 폭목이 되었다.

투자로부터의 수익이 현저했던 시기와 일치한다.”고 대외투자와 식민지 병합사이의 인과연쇄를 분명히 그리고 강력히 시사했었다.⁴⁸⁾ 그렇다면 무엇이 필드하우스의 오류였던가? 그것은 엘리트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필드하우스 등의 비판자들은 영국자본의 대부분이 열대 아프리카에 투자 되었어야만 흡슨의 명제의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가정했고 따라서 흡슨도 그런 의미로 말했을 것으로 지레 짐작했다.⁴⁹⁾ 물론 『제국주의론』에는 흡슨 자신도 자료의 부족을 안타까워한 바 있지만, 대외투자의 지역적 구분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계나 언급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비판자들의 오류는 이해될 수 있으나 그들이 흡슨의 주장을 잘못 이해하고 이를 비판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문제는 남아 있다. 즉 그것은 흡슨이 대외투자와 식민지 병합을 어떻게 인과적으로 설명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로이드의 연구는 이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다. 그는 미소한 규모의 투자가 식민지 병합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아프리카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서 보여줌으로써 흡슨의 명제를 크게 강화해 주었다. 그는 적은 투자라 할 지라도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에서는 병합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흡슨의

48) *Imperialism*, pp.51-2.

49) John Allett, *New Liberalism: The Political Economy of J. A. Hobs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1), p.152. 필드하우스는 ‘많은 투자’만이 영국정부의 정책을 병합으로 이끌 수 있다고 단정했기에 그는 열대아프리카에 대해 실제 행해졌던 미소한(marginal) 투자가 병합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거꾸로 다른 정치적 이유로 병합이 이루어진 뒤 정치가 투자를 유인했다는 주장으로 과감하게 나갔다. 즉 그는 영국정부가 ‘미소한 투자’를 한 자본가들의 요구를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D. K. Fieldhouse, “‘Imperialism’ ---”, pp.111-122. 이 같은 ‘미소한 경제적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 특히 정치적, 전략적 요인을 강조하는 비판자들은 흡슨이론이 투자와 병합의 先後를 전도시켰다고 맹렬하게 비난해 왔다. 자유무역 제국주의론자들이 이를 비꼬는 말인 ‘마차가 말을 끄는 꼴이다’ 라든가 ‘때늦은 사후합리화’ 등은 바로 고전적인 경제적 제국주의론의 이러한 顛倒현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필자는 논문, “1880년대 Niger강 유역에 있어서의 영국의 팽창성격: Opobo의 왕, Jaja의 폐출사건을 중심으로” 『西洋史研究』, 제6집, 1984, p.2를 참고할 것.

공원은 무역과는 다른 투자의 지속적 기능을 분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⁰⁾ 구체적으로 말해 남아메리카에서와는 달리 원시적 상태에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투자라 할 지라도 ‘법과 질서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병합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⁵¹⁾ 그는 특히 투자가 없는 무역, 즉 단순한 상품의 교환관계만으로는 영토병합이 없었을 것이라고 양자의 병합에 대한 기능을 대비시키면서 이를 홉슨의 공으로 돌리고 있다. 엘리트는 홉슨이 자본수출과 제국주의와 사이에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식했다고 로이드의 주장을 일반화시켰다. 즉 그는 상품의 교역과는 달리 자본투자는 열매를 맺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채권국이 투자지에 대한 빈번한 감독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침략성이 비롯된다는 점을 홉슨이 인식했음을 지적하였다.⁵²⁾

이렇게 봤을 때 ‘홉슨-레닌 테제’가 가정했듯이 대외투자와 식민지 병합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홉슨이 주장했음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홉슨-레닌 테제’는 홉슨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한 셈이다. 그러나 홉슨은 필드하우스가 말하듯이 대투자지역과 병합지역을 무리하게 일치시키려고 통계조작이란 ‘지적 기만’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미소한 투자’라는 사실

50) Trevor Lloyd, "Africa and Hobson's Imperialism", *Past and Present*, No. 55, 1972, p.141, p.152.

51) "Africa and Hobson's Imperialism", p.143. 로이드는 이런 점을 들어 "이런 투자가 없었더라면 아프리카의 지도는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고 그것의 아프리카 병합에 대한 영향력을 결정적인 것으로 강조했다. p.152.

52) *New Liberalism: The Political Economy of J. A. Hobson*, p.134. 홉슨의 이에 관련된 언급은 다음과 같다. "무역업자가 면화, 피복, 총, 술 등을 파는 국가의 물질적 번영과 훌륭한 통치에 대해 갖는 이해는 제한되어 있고 변화한다. 무역업자는 어떤 국가에서 그의 시장이 줄어들면, ---다른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의 무역(투자와 원료의 개발과 관련된)이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 대한 '평화적인 침투'로 발전했을 때, 무역은 재외상관과 화물집하장에 의해 보완되기 시작한다. 이때 외국에 수립된 이해관계는 훨씬 크고 보다 안정적이며 영속적이다. 후진국에서 이런 안정되고 지속적인 이해의 확보와 보호 및 확대가 근대 외교정책에서 발화물질의 큰 부분을 이룬다." 이 말은 원래 실린 곳은 *Richard Cobden*, (p.403-4)이나 위에서 재 인용하였다.

을 ‘인정’ 하면서 식민지 병합에 대한 설명을 추구해 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비판자들은 이러한 설명의 구조에 대해 논박을 가했어야 정당했을 것이다. 즉 대규모 투자가 병합지를 지향하지 않았다는 비판자들의 주장은 그런 점에서 흡슨의 이론에 손상을 줄 수 없다.

이제 남은 문제는 ‘투자 제국주의론’이 19세기 말의 식민지 팽창에 대한 레닌의 설명과 일치하는가의 문제이다. 레닌은 스톡스가 지적하듯이 금융자본으로의 이행기가 식민지 각축과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⁵³⁾ 그러나 레닌은 ‘흡슨-레닌 테제’가 가정하듯이 투자가 식민지 병합의 원동력이라고 말한 바 없다. 왜냐하면 레닌 역시 흡슨처럼 오직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외투자 가운데 오직 적은 부분이 열대 아프리카로 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⁵⁴⁾ 물론 레닌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자본수

53) "Late Nineteenth-Century Colonial Expansion---", p. 291. 이에 관련된 레닌의 말은 다음과 같다. "前 독점자본주의, 즉 자유경쟁이 지배적이었던 자본주의의 발전은 186-70년대에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 식민지 정복의 엄청난 붐이 시작된 것은, 그리고 세계의 영토적 분할을 위한 투쟁이 비상하게 첨예해진 것은 바로 그 다음 시대였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 즉 금융자본의 단계로의 이행이 세계분할을 위한 투쟁의 강화와 연관되어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Imperialism*, p. 224.

54) 레닌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 "영국의 경우 대규모 자본수출은 광대한 식민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프랑스의 자본수출은 주로 유럽으로, 특히 러시아로 갔다. 영국의 식민지 제국주의와는 달리 프랑스의 제국주의는 고리대 제국주의라 불려질 만하다. 보유한 식민지가 보잘 것 없는 독일의 경우 제3형의 제국주의라 이름 붙일 수 있는데, 해외에 투자된 독일의 자본은 유럽과 아메리카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Imperialism*, pp. 213-4. 여기서 영국의 '식민지 제국주의'의 경우에도 레닌은 그 투자가 1870년 이후의 신생 식민지가 아닌 백인 자치령을 주요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레닌은 열강의 자본수출이 가능한 지역을 공업발전에 기초적인 조건들이 마련된 지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책, pp. 121-3. 이런 점에서 스톡스가 영국의 경우 주된 자본투자가 식민지였음을 레닌이 시인했다고 말한 것은 오류이다. 그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가 신생 식민지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잠시 망각한 듯이 보인다. "Late Nineteenth-Century Colonial Expansion---", p. 29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논문,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대한 '실증적' 비판과 그 한계", pp. 87-9를 참조할 것.

출과 식민지 병합을 직접 관련시키고 있다. 레닌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자본수출의 이해 ‘또한’ 식민지 정복의 충동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식민지 시장이 경쟁을 배제하고 독점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 이 방식은 때때로 채택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 그리고 정부납품을 확보하고 이권을 보장받는 것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때문이다.”⁵⁵⁾

이 말이 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 자본수출과 식민지 병합을 연관시킨 유일한 문구이다. 레닌은 먼저 원료 독점과 병합의 인과적 관계를 주장한 뒤에, 자본수출의 이해 ‘또한’ 관계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레닌의 말에서 “금융자본의 자본수출이 식민지 병합의 원동력이었음”을 이끌어 낼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홉슨-레닌 테제’는 전적으로 오류는 아니더라도 크게 과장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끝으로 ‘금융자본의 정부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에 대한 필드하우스의 가정이 레닌의 관련되는 주장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인가를 고찰해보자. 이에 대한 필드하우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레닌에게 있어 금융자본은 1900년경에 확립되었으며 그것은 너무나 강력해 정부의 정책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금융자본의 전능한 힘을 훨씬 전의 일인 식민지 각축기에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자본의 수립은 독일과 미국에 있어서조차 실제로 1900년 이후에 등장했다. 따라서 레닌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금융자본이 식민지 팽창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주장했으므로 오류이다.⁵⁶⁾ 우리는 앞서의 고찰을 통해 전체의 맥락에서 레닌의 이론이 19세기 말의 식민주의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지만 ‘자본주의의 독점단계’로의 이행기에 대해 일정한 관심을 보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레닌은 1876년 이후 프랑스에서 금융자본

55) *Imperialism*, p. 229.

56) “*Imperialism* ---”, p. 103, pp. 107-8.

의 급속한 발전과 그 병합주의적 정책의 격화가 우연일치는 아니라고 말해 금융자본의 발전이 식민지 팽창에 큰 연관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⁵⁷⁾ 그러나 레닌은 사실상 '이행기에 있어서 식민지 팽창에 대해 결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에서도 금융자본의 발전동향을 시사하면서 여러 요인들을 아울러 나열하는 정도에 그쳤다. 레닌이 독점 자본주의로의 발전과 식민지 병합사이의 관계를 '고의로 모호하게' 남겨두었다고 스톡스가 불만스럽게 말했던 것은 이처럼 레닌의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다.⁵⁸⁾ 결국 스톡스는 이 시기에 대한 레닌의 설명이 경제적 하부구조 뿐만 아니라 상부구조에 해당하는 이데올로기와 정치 등의 역할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경제 결정론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⁵⁹⁾

'홉슨-레닌 테제'에 대한 가장 최근의 옹호자인 엑쉬타인은 두가지의 다른 홉슨이론을 가정했던 에더링튼처럼 스톡스도 서로 다른 두가지 레닌이론을 상정한 셸이라고 비판하면서 홉슨처럼 레닌도 오직 한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스톡스는 각축기의 설명에서 상부구조의 요인들에 의거하는 레닌과 제국주의시기의 설명에서 금융자본에 의거하는 레닌이란 두 레닌을 상정했다는 것이다.⁶⁰⁾ 그는 레닌의 각축기에

57) *Imperialism*, p. 234.

58) "Late Nineteenth-Century Colonial Expansion---", p. 291. 레닌이론을 지지하는 키어난 역시 보다 완곡한 표현으로 이러한 모호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레닌이 자본의 집중과 식민지 각축사이의 연관성이 단지 양자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을 때, 레닌은 설사 수학적으로 논리적이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타당하다는 것이다. V. G. Kiernan, "Farewells to Empire: Some Recent Studies of Imperialism", *The Socialist Register*, 1964, p. 259.

59) "Late Nineteenth-Century Colonial Expansion---", pp. 291-3.

60) "Is there a 'Hobson-Lenin thesis' ---", p. 309. 여기서 스톡스가 각축기의 설명에서 '상부구조'에 의거한 레닌을 상정했다는 엑쉬타인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 왜냐하면, 스톡스는 '상부구조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하부구조'에 중점을 두면서 그럴 경우도 레닌에 대한 비판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경제 결정론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Late Nineteenth-Century Colonial Expansion---", p. 292.

대한 설명의 분석에서 레닌이 경제적 영향력의 강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고 ‘스톡스의 상부구조’를 결국 하부구조에 기초한 ‘단순한 것’이라고 걸러내 버리고 있다.⁶¹⁾ 그러므로 그에게는 레닌이 결국 각축의 시기에도 일관성있게 투자압력과 독점체의 증대하는 압력만으로 세계분할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엑슈타인의 이러한 말은 ‘변증법적 유물론자임을 구실로’ 내세워 레닌의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하부구조에 둘러버릴 수 있는 극단적 환원주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레닌이 ‘이행기’에 있어서 금융자본의 강력한 영향력을 시사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레닌이 그 ‘전문적’ (technical) 용어의 의미에서 ‘제국주의’가 일정한 시점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그가 금융자본과 투자압력에 기초한 서구의 식민지 팽창이 그때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엑슈타인의 말은 수긍될 수 있다.⁶²⁾ 그러나 그런 요인이 각축기에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레닌은 결코 주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금융자본으로의 이행기’였기 때문이다. 이행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금융자본은 그 확립의 시점까지 계속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행기의 처음부터 금융자본이 결정적 영향력을 가질 수는 없다. 레닌은 이러한 미세한 발전과정을 분석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식민지 팽창에 대한 설명에서 훨씬 신중한 접근 방식을 택했다. 레닌의 말을 들어보자.

“순수한 경제적 조건에 덧붙여서 그리고 경제적 조건의 토대위에서 지리적 조건과 다른 조건들 역시 식민지 면적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⁶³⁾

“금융자본은 수 많은 옛 동기들에 원료원과 자본수출, 세력권 - 유리한 거래와 이권, 독점이윤 등을 위한 영역, 즉 경제적 영토 일반을 - 위한 투쟁을 덧붙

61) “Is there a ‘Hobson-Lenin thesis’ ---”, pp. 309-10.

62) “Is there a ‘Hobson-Lenin thesis’ ---”, p. 311.

63) *Imperialism*, p. 226.

붙이고 있다."⁶⁴⁾

레닌의 이러한 말은 경제적 요인과 비 경제적 요인이 나란히 놓여 있음을, 그리고 舊동기와 新동기 역시 나란히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레닌이 경제적 요인과 신동기를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은 가능할 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지배적이었음을 끌어내는 것은 매우 무리한 것처럼 보인다.

레닌의 '식민주의'에 대한 설명은 엑쉬타인과 필드하우스 등이 가정하듯이 궁극적으로 금융자본이라는 단일요인에 기초하는 경제결정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투스가 말한 것처럼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제 요인의 종합이었다. 레닌은 성장하고 있는 금융자본의 지배적인 경향을 시사하면서도 이를 다른 비 경제적 요인들과 '나란히' 놓았다. 즉 그는 이런 요인들을 상,하로 배열하지 않았던 것이다. 스투스는 레닌의 이러한 점을 '고의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레닌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레닌의 주된 관심은 분할된 세계의 재분할 투쟁의 필연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었고 세계의 분할과정에 대한 그의 설명은 이에 대한 부차적, 보완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아직 금융자본의 우세가 확립되기 이전인 '이행기'에 대한 분석에서 금융자본의 결정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일 자체가 레닌에게는 가능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홉슨-레닌 테제'의 '자본수출에 입각한 제국주의론'은 홉슨의 경우와 레닌의 경우 모두 정확한 同一觀에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이제 양자의 핵심적인 명제들에 대한 과장이나 왜곡의 요소들이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홉슨-레닌 테제'는 매우 협소하고, 지엽적인 立地만을 남기게 될 것처럼 보인다.

64) *Imperialism*, p. 258.

V

한 마디로 '금융자본의 자본수출에 기초한 제국주의론'으로 요약될 수 있는 '홉슨-레닌 테제'는 홉슨과 레닌에 대한 기존의 비판들의 핵심을 분명히 함으로써 양자의 이론에 대한 '근질긴 지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 하려는 목적에서 정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 테제를 수립한 필드하우스의 의도는 홉슨과 레닌의 이론의 '사활적 교의'라고 생각되어온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자본수출과 식민지 병합사이에 놓인 인과연쇄의 고리를 절단 하고 그 대신 다른 고리를 갈아 끼려는 것이었다. 물론 그는 자신의 규명이 너무도 완벽해 '역사주의자들의 최후의 보루'를 철저히 파괴하는데 성공했음을 자신했다.

그러나 필드하우스가 파괴에 성공했던 '그 사활적 교의'는 정작 비판의 대상이었던 홉슨과 레닌에게는 전적으로 사활적 교의는 아니었다. 그는 홉슨과 레닌의 이론과는 별도로 자신이 제3의 교의를 만들어놓고 이를 비판하고 그 성공을 즐겨온 셈이다. 후대의 비판자들에 의해 '홉슨-레닌 테제'라는 별명을 얻게된 이 교의는 부분적으로는 홉슨과 레닌이론 자체에 놓여있는 모호함 때문에, - 특히 홉슨의 경우에 해당한다 -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비판자들의 부주의함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홉슨-레닌 테제'가 등장하게 된 주된 조건은 첨예한 이념적 대립을 증폭시켜온 그동안의 정치적 상황에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국주의'라는 연구분야가 그 어떤 연구 주제보다도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문의 세계에서 차분히 다루어지기에 너무도 강력한 현실정치의 요소들을 내포해왔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의 문제는 레닌에서 모택동을 거쳐 오늘날 제3세계의 해방운동의 실천적 과제로서 여전히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제국주의를 둘러싼 학문적 논쟁은 이에 관련된 학자들의 이념적 경향성을 쉽사리 드러낼 뿐만 아니라 현실의 정치적 대립을 반영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러한 점에서 ‘홉슨-레닌 테제’ 논쟁은 제국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정확하고 정당한 대상의 이해’가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임을 드러냈고, 그럼으로써 평행선을 달려온 상반된 주장들을 하나의 場으로 모을 수 있는 계기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홉슨-레닌 테제’가 그 논박의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음을 고찰해왔다. 그러나 이 테제가 정확한 同一視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홉슨과 레닌이론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